**42-26호 2025년 6월 29일**

**교제와 나눔**

**\*\* 선교교회에 처음 나오신 형제 자매들을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

**ㆍ매일성경 7,8월호가 도착했습니다.**

**ㆍ바이블12 속강:** 7월 2일(수) 21시 30분 온라인

**ㆍ연합어린이여름성경학교 3차 준비모임:** 7월 12일(토) 10시 30분 쾰른한빛교회당

**ㆍ2025연합어린이여름성경학교:** 7월 14일(월)-16일(수) DJH Jugendherberge Kleve

**ㆍ생일축하:** 이다정

**◆말씀일기 일정**

|  |  |  |  |
| --- | --- | --- | --- |
| 일/대상29:1-19 | 월/대상29:20-30 | 화/계시록1:1-8 | 수/계1:9-20 |
| 목/계2:1-7 | 금/계2:8-17 | 토/계2:18-29 | 일/계3:1-13 |

**◆114 운동-**하루**(1)** 한번**(1)** 말씀일기 & 성경 **(4)**장 통독

**성경 300독 대행진: 248독**

**◈ 예배위원 안내 ◈**

|  |  |  |  |  |
| --- | --- | --- | --- | --- |
|  | **6월 29일** | **7월 6일** | **7월 13일** | **7월 20일** |
| **예배기도** | 김대진 | 권미정 | 황선우 |  |
| **안내위원** | 예배부 | | | |
| **봉헌위원** | 백윤정 민경웅 | | 나지홍 김종권 | |
| **애찬위원** | 밥상 일곱 | 밥상 하나 | 밥상 둘 | 밥상 셋 |



**“네 자신을 연단하라”**(딤전 4:7)

주일예배 11:45 Teestube 소망방

14:00 Mutterhauskirche

유초등부 14:00 Teestube 평화방

청소년부 14:00 Teestube 믿음방

청 년 부 15:30 Teestube 믿음방

토요기도회 07:00 Teestube 믿음방

선교성경아카데미(MBA): 누구든 어디서나

**담임/ 손교훈 목사** Pastor Dr. Kyo-Hoon Sohn

☏ 02131-5249 186 HP. 0176-5779 1004

**교육/ 이동훈 목사** HP. 01525-2367 629

**교육/** **박승은 목사** HP. 0157-3845 5550

**선교협력/ 이광열 목사** HP. 0157-7388 7498

1983년 5월8일 창립 **뒤셀도르프선교교회**

**교회 홈페이지 duemission.de**

**교회당 주소 Alte-Landstr. 179, 40489** **D****üsseldorf**

**주 일 예 배**

**)**

**4.Advent)**

인도: 손교훈 목사

|  |  |
| --- | --- |
| ※입례송/Eingangslied ……….….… 왕이신 나의 하나님 ….………………..… | 다함께 |
| ※예배부름/Eingangsgebet …………..………...............……………………………….… | 인도자 |
| ※찬송/Gemeindelied …................................... 6장 ............................................... | 다함께 |
| ※신앙고백/Glaubensbekenntnis …….…………………………..…….......................... | 다함께 |
| 성시교독/Wechselwort ……….......... 교독문 59번 .……………..................... | 다함께 |
| 찬송/Gemeindelied …………...………...... 299장 …….…………..………..…...... | 다함께 |
| 기도/Gebet ............................................................................................................... | 김대진 집사 |
| 찬양/Chor …………………........... 바다에 놀이 일 때에 ..…………..…...… | 찬양대 |
| 성경봉독/Text zur Predigt ………. 역대상 29:1-19 ……….…………..…...... | 인도자 |
| 설교/Predigt .................................... **드림의 미학** ……………………….……. | 손교훈 목사 |
| 찬송/Gemeindelied .................................... 317장 …......................................... | 다함께 |
| 봉헌/Kollekte……..…………….…………………………………………….……………….. | 다함께 |
| 교제/Bekanntmachung……………………………………………...………..…….……... | 다함께 |
| ※주기도송/Vaterunser……...……………………………....……..…….………….….......... | 다함께 |
| ※축도/Segen …………………………………………………………..……............................ | 손교훈 목사 |
|  |  |
| **※** 표는 일어섭니다. |  |
| **\*\*교회 구좌\*\***  Ev. Presbyterianische Kirchengemeinde e.V.  Bank: Stadtsparkasse Düsseldorf  IBAN: DE61 3005 0110 1008 4019 01 일반계좌  IBAN: DE49 3005 0110 3007 9500 29 선교관계좌 |  |
|  |

▶ **손교훈 목사의 말씀일기 대상28:1-21 '아버지의 설계'** ◀

아버지 다윗의 비전에 따라 성전 건축 준비가 진행된다. 다윗은 성전 곳곳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11) 준다. 이 모든 일의 설계는 여호와의 손을 통한 것이라는 데도, 나는 왜 숨이 탁 막혔을 솔로몬이 떠 오르는 걸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무 몰아붙이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생전의 나의 아버지와 다윗의 스타일이 많이 달라서 그런 건가?

부모가 자녀들에게 어디까지 설계도를 만들어 주어야 하고, 어디까지 자율에 맡겨야 하는지, 그 경계를 정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어떤 식으로든 귀한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거나, 대를 이어 행해야 할 비전과 과제를 전해 줄 수 있다면 좋을 텐데, 그 때 아버지의 ‘설계도’ 만큼이나 자식의 순종이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아들이 아버지의 설계도에 따르려면, 하나님으로부터 설계를 지시 받았다 말하는 아버지의 인격과 신앙에 자식이 기쁘게 동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혹, 나는 그게 두려워 아들들에게 조금 더 강력한 설계도를 제시하지 않았던 걸까? 아니면, 아들들을 향한 내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더욱 믿고 존중하기 때문이었을까?

분명한 것은,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어떻게 설계하셨는지 전해 주는 아버지가 되고 싶고, 아들들을 향한 하나님의 설계가 무엇인지 겸허히 묻는 아버지의 길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지난 주** **봉헌 내역(6월 22일-6월 28일)**◀

|  |  |
| --- | --- |
| **십일조** | **감사헌금** |
| 김평님, 김영수, 유근임 | 전소현, 무명, 무명 |
| **총액 863,47€** = 363,47(예배당) + 500,00(온라인) | |